

슈라쿠엔 대불

슈라쿠엔 대불은 1927년에 완성한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조 대불입니다. 완공 당시에는 일본 최대의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대불 건조자는 야마다 사이키치라는 실업가입니다. 사재를 투입하여 “쇼와 천황 성혼 기념 사업”으로 1924년에 착공해 3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야마다 사이키치가 죽은 후에는 사업체의 소유를 거쳐 1983년부터 종교법인 다이부츠지 절이 소유하게 되면서 많은 시민의 기부를 통해 대규모 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슈라쿠엔 대불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건조물인 만큼 시내의 사람들이 친숙함을 느끼는 도카이시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개안 공양의 모습 (1927년)

지정문화재로서의 슈라쿠엔 대불

시지정문화재(명승) 1983년 11월 24일 지정

슈라쿠엔 대불 및 경내는 다음과 같은 점을 평가받아 명승지로 지정되었습니다.

- 슈라쿠엔 대불의 웅장한 모습은 고귀하고 품격이 있으며 자애롭게 반쯤 뜬 눈은 명상적 깊이가 있어 미술 감상 상 높은 가치가 있다.
- 이세만에 인접한 높은 대지에 위치하므로 풍치가 수려한 경관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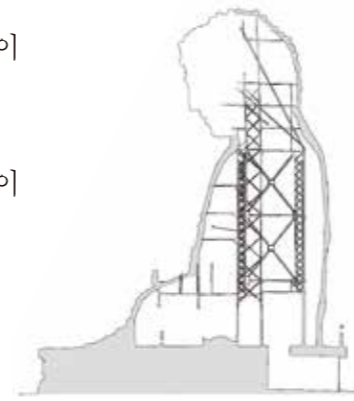
시지정문화재(건조물) 2021년 2월 18일 지정

슈라쿠엔 대불 및 인왕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평가받아 문화재 건조물로 지정되었습니다.

- 축조 시에 일본 최초이자 최대인 철근 콘크리트조 대불이었다.
- 콘크리트의 강도가 극히 높아 철근 콘크리트조 조형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기술적으로도 선진성이 있는 건조물이다.
- 아무나 방문 가능한 공공성이 있는 건조물로 시내외에서 사랑받는 지역 경관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슈라쿠엔 대불의 구조

슈라쿠엔 대불 내부는 빈 공간이며 불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뼈처럼 생긴 철골 기둥과 그 주변에 설치된 4개의 기둥이 대불을 지탱합니다. 불상의 구조의 중심이 되는 철근 콘크리트는 두께가 10~60 cm 정도로 가장 바깥쪽은 모르타르로 매끄럽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슈라쿠엔 대불 단면도

- ※ 콘크리트...시멘트+물+세골재(모래)+조골재(자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구조체에 이용된다.
- ※ 모르타르...시멘트+물+세골재(모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건물 외부 장식 및 마무리에 사용된다.

슈라쿠엔 대불 축조법

슈라쿠엔 대불에는 현대식 건물 같은 설계도가 없습니다. 본바탕이 되는 작은 모형상을 제작하고 이를 확대해서 콘크리트를 부어 형틀을 한 단계씩 만들면서 축조해 나갔습니다.

- ① 실제 크기의 10분의 1 사이즈의 목각 모형상을 만듭니다.
- ② 콘크리트 형틀을 한 단계씩 만들기 위해 모형상을 가로 방향으로 분할하여 특수한 잣대로 실물크기로 확대한 선을 긋습니다.
- ③ 등뼈가 되는 철골을 만듭니다. 철골 밑동은 땅속에 깊이 파묻었던 모양입니다.
- ④ 확대한 선을 바탕으로 1.3cm 정도의 굵기의 철근을 이용해 가로 세로 18cm 정도의 간격으로 배근하여 철근 콘크리트로 심을 만들어 줍니다.
- 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위한 60여 cm 높이의 형틀을 만듭니다. 3차원 형태의 복잡한 형틀이었던 모양이며 그 당시의 높은 기술력이 엿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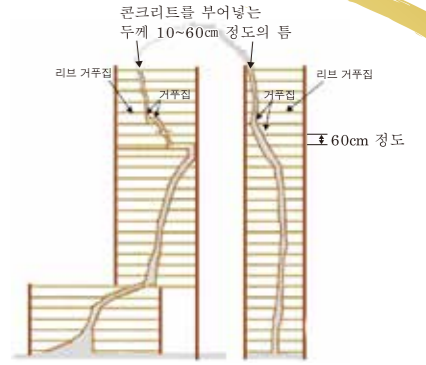


① 이미지는 같은 건축 방식을 사용한 니시오시 조후쿠지 절 대불(가리야도노 오보토케)의 모형상



② 모형상 확대하기(모식도)

- ⑥ 형틀이 몇 개 제조되면 콘크리트를 부어넣습니다. 시멘트 등 대량으로 사용할 원료는 바다 쪽 경사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운반했습니다.



⑤ 형틀 만들기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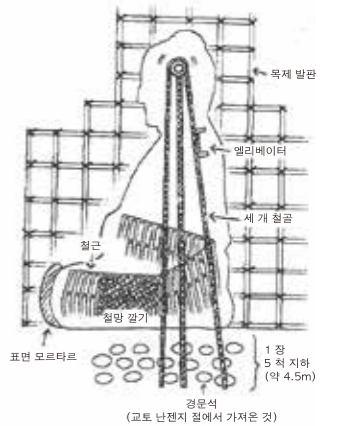
- ⑦ ④~⑥ 작업을 되풀이하여 불상을 지어 나갑니다. 높은 곳에는 중앙 철골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나른 것으로 보입니다.



⑥ 청취를 통해 만든 이미지 도면 (바탕 도면 제공 : 무라세 시코 씨)

- ⑧ 대불 바깥쪽을 마무리합니다. 심이 되는 철망을 고정 후 모르타르를 덧칠해 갑니다. 이때에 색깔을 섞어 착색했던 모양입니다.

- ⑨ 내부 엘리베이터 등 설비를 철거하여 불당 등을 만듭니다. 대불 뒤쪽에 반입용 구멍이 나 있었으나 내부 마무리 시에 메워졌습니다.



⑦ 청취를 통해 만든 이미지 도면 (바탕 도면 제공 : 무라세 시코 씨)

- ⑩ 불상 대좌 등을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슈라쿠엔 대불 정보 팁

- 백호 (부처의 두 눈썹 사이 부분)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등을 끼워 넣어 등대처럼 빛을 냈었다고 합니다. 현재 내부에 남아 있는 전등을 설치한 흔적은 2차 대전 후의 것으로 보입니다.
- 부처님 머리카락(나발)은 108개였다고 합니다. 슈라쿠엔 대불의 나발은 나중에 설치되었으며 윗부분의 채광창을 포함해서 총 108개입니다.



내부에 남은 전등 흔적



위에서 내려다 본 나발